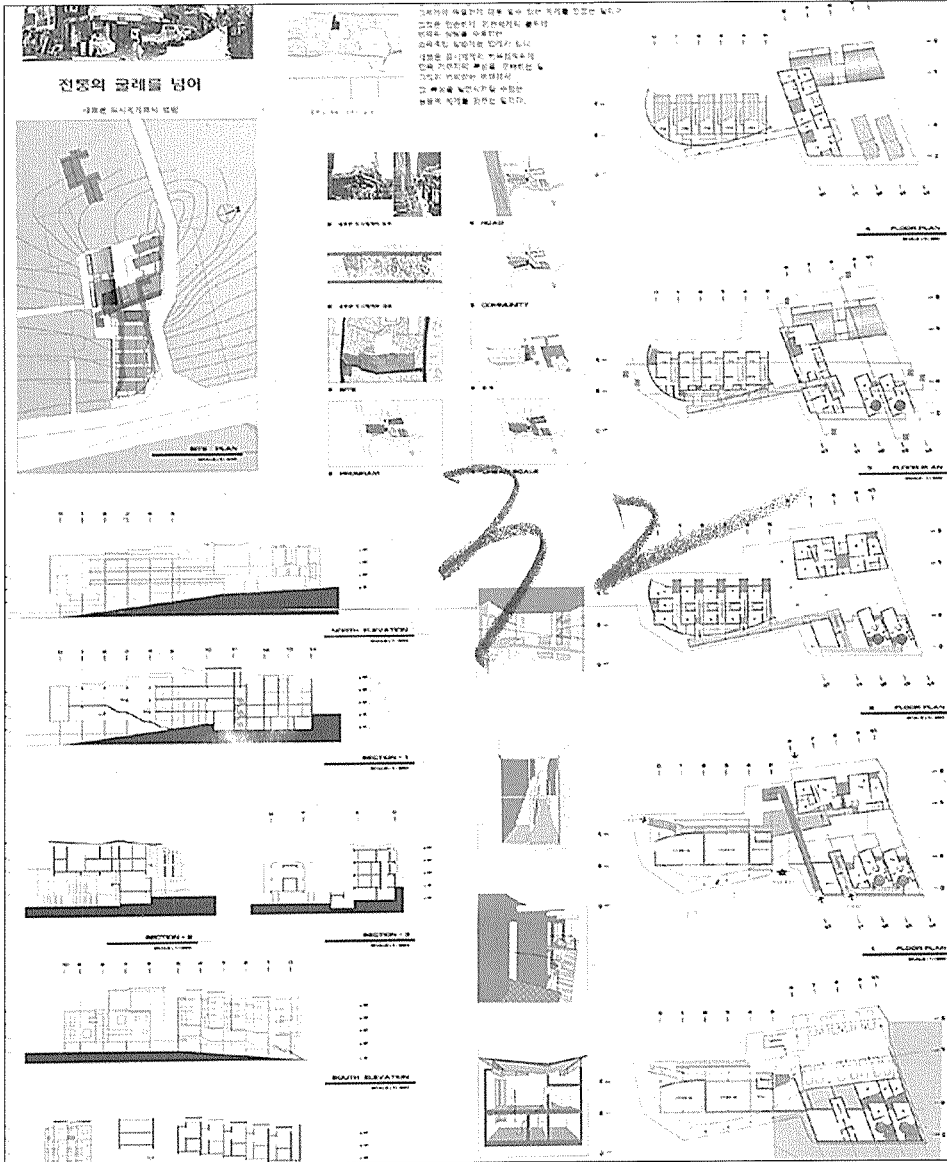


전통의 골레를 넘어서

김종문+한상범 / 엑토건축사사무소



서울의 대표적 한옥 보존 지역이었던 북촌 마을 일대가 한옥 보존 지역 해제라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변하여 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기존 한옥 주거지가 가지고 있던 도시 하부 조직들이 침투하는 새로운 도시 체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옥 거주지의 특성을 유지시키는 적절한 방법은 새로운 도시 조직 체계의 하부 조직 위에 한옥 거주지의 특성을 구축하는 일이다.

새로운 도시 조직 체계 내에서, 계동의 주된 도로와 계동과 가회동을 잇는 부도로 사이에 놓인 대지의 잠재적 요구는 상업적 기능을 포함하는 주거 구성과 용적의 극대화에 따른 수직적 구성 이에 따른 스케일의 확대 등이다.

따라서, 주된 도로의 도시적 스케일과 상업적 요구, 주민 근린 생활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전면에 근린 생활 시설과 주민 편의 시설을 포함하는 구성을 취했으며 이에 따라 확대된 스케일로 인하여 주변 소도로들이 골목의 특성을 상실하는 것을 고려하고, 도로와의 대응 전체 주민과의 친밀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주거 순환 체계를 부도로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것이 또한 공동 주거 자체 내의 골목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의도하였으며, 이와 같은 구성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생활의 침해는 전면 벽이 주거의 영역성을 확보하는 벽의 역할로 치환시킴으로서 극복하고자 하였다.

대지 후면 구성은 후면의 문화재급 한옥에 대해 열린 형태를 취함으로 북촌마을의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Open Space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였으며, 대지의 전면과 후면 사이의 각기 다른 특성에 의하여 양분되는 형태 사이의 이원감을 내부순환 체계의 상호관입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또한 각자의 주호를 수직적 구성 체계속에서 열린 개별 영역은 공간을 갖게함으로써 도시·공동체·개별주호에 이르는 일련의 공간적 연속성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청담(淸談)

천 보 / 홍익대 대학원
김태연 / 홍익대 건축공학과

청담(淸談)

동구의 정자나무. 그 그늘의 淸談은 시비를 가리기도 했고, 마을에서 생기는 모든 일이 거쳐 나간다.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은 변해 가지만, 정자나무 아래에는 언제나 아이들의 숨결이 있고, 장년의 이상이 있으며, 할아버지들의 세월이 머물러 있다.

위치 / 서울시 중로구 가회동 1번지 일대
세대수 / 12세대
세대구성 / 3세대 동거형 47구
일반 주거형 47구
Duplex 47구

개념

배치의 기본 형태는 L-Shape의 남동쪽에 중정을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기본 모듈은 ABABA Grid를 적용해 2.5M Human Scale의 골목길 형태인 외적 요소와 7.5M Span의 건물 내부의 동선 체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벽의 이미지를 깨보려 했다.

